

“번역 · 수출사업,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한주리 | 한림출판사 국제부 대리

국내 출판계의 외국 출판물에 대한 의존현상이 심각하다. 에이전시는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상업적인 논리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의 한국학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번역 · 출판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도 우리 출판물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제는 민관이 협력해 출판물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 할 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진행되는 와중에 KBS 뉴스(2001. 3. 20.)는 우리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기자는 “미국의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역사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저술한 관계 서적을 토대로 번역 · 사용돼 내용이 크게 왜곡돼 있고, 중국이나 일본 역사는 많은 양이 영어로 번역됐지만 영어로 된 한국 역사책은 몇권 되지 않는 데다 대부분 일본인이 저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 번 잘못 심어진 한 나라의 역사 인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외국 도서 수입에만 열중인 국내 출판계

그럼에도 국내 출판계는 외국의 판권을 사들이는 데만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저작권 수입과 수출의 무역 역조율은 약 130:1 정도나 된다. 또한, 국내의 여러 에이전시들은 외국의 판권을 수입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지 수출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문화산업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인 문화 증진과 상업적 이윤이라는 두가지 명제 사이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즉, 저작권 수출은 국내판 도서나 해외 판권을 사들여 번역 출간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고, 판로 또한 불분명한 현실에서 번역수출에 용감하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로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학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학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일곱 개의 미국 대학 가운데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수가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도서가 출간되기는 쉽지 않다.

저작권 수출 외에도, 번역 출판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의 출판보조비 사업으로 10여종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 출간됐고, 대산문화재단의 출판지원사업으로 27여종의 도서가 출간됐으며, 한국문화예술타인홀에 의한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지원사업으로 1991년 이후 번역출간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한정된 부수로 제작되거나 겨우 초판 인쇄에 그칠 뿐이고, 지원금을 받고 책을 출간한 외국의 출판사들은 판매 · 보급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민간기구가 협력해야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 인식은 뒷전이고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선 왜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느냐고 불멘소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운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영진닷컴이나 보림,

디자인하우스 등 개별출판사들의 저작권 및 도서수출 활동 등은 착박한 도서수출 풍토에서 소중한 일이다.

이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의 경우, 외국의 제도가 갖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의 문학작품 번역발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노벨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들이 영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 · 소개됐다. 그리고 출판문화국제교류회(PACE)와 같이, 출판물을 통한 해외 교류사업을 펼치는 전문단체의 역할 또한 외국인들이 일본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별출판사들도 자사 도서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문으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일본 출판사가 15곳 정도이며, 영문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7곳 정도 있다. 또한 배포망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 고단샤 인터내셔널(Kodansha International Ltd.)은 전세계에 19곳의 배포처가 있고,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도 18개국 19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상당히 체계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때다. ●